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개발 연구

윤미영 (동명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 III. 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교과목 구조 및 운영방안
- IV. 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주차별 세부 강의 주제와 내용
- V. 결론

국문초록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대 청년의 우울증이 위험수준에 다다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학의 현실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소양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기준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과목의 개발연구는 매우 적절한 일이다.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학제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인문예술학의 결합으로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데에 최적화된 전락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융복합·학생체험을 강조하는 '탈경계 교육실현'에 따르는 설계로서 수업에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융복합 교과목, 코로나 블루, 인문예술치료학, 탈경계 교육실현, 옴니버스 강의

1. 서론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적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확산·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치료와 예방을 위한 모든 과학기술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깊게 퍼진 사회적 불평등, 불안과 공포, 상호 불신, 혐오 등 전염병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여러 가지 사회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코로나 우울증 자가진단과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의 우울증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성진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20대는 취업과 인적교류에 대한 스트레스가 취약한 성격이 마음의 상처들과 결합되면서 청년층에서 자해나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으며 물리방역도 중요하지만 심리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대학에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자기 주도적 소양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양교육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불안한 시기에도 자아상의 변화와 성장은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기준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에 대한 교과목의 개발연구는 매우 적절한 일이다. 대학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¹ 개

1. 치료와 치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치료(治療, treatment)는 누군가(의사)에 의해서 병이나 상처를 치료한다는 뜻으로 병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치유(治癒, healing)는 스스로 병을 낫게 한다는 뜻으로, 병의 원인을 알고 풀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치유는 저절로 병이 낫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치유라고도 하며, 병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아도 병이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다. (손박사 지압원, 「치유와 치료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8. 6. 2.,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octor_acupressure/221290135328, 2021년 7월 7일 접속) 본 교과목에서는 대학생들의 코로나

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생의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학제 간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코로나19라는 혼돈의 시대를 극복할 마음의 지혜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변화의 본질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세계와 인간 존재를 지탱해온 가치, 사상, 패러다임을 뒤흔들었다. “분명한 사실은 근대의 질주가 좌초하고 근대성의 패러다임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² 연구자는 20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견디고 대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근본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자기치유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교양교과목으로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는 단지 의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일구어 온 문명의 모순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인류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곤경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자연 질병이지만 사회 질병이고, 국가질병이지만 세계질병이 분명하다. 더 이상 일국 차원에서는 퇴치가 불가능한 복합적·중층적인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하나의 전공 분야의 한계성을 넘어 학제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인문예술학의 결합으로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데에 최적화된 전략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구자는 이런 조건에 부합한 융복합 교양교과목으로 교육목적과 방향, 교과목 구조와 운영, 담당교수와 전문 강사로 구성된 연구진, 주차별 상세 강의안을 제시하였다.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팬데믹의 원인과 변화상을

블루 극복을 위해 전공 담당교수와 강사들이 인문예술학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지도하기 때문에 '치료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라 생각되어 '치료'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인문예술치료학을 배운 후 학생이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치는 것을 '자기치유'라고 표시했다.

2. 안치용, 『코로나 인문학』, 김영사, 2021, 5~6쪽.

방역과 경제경영 분야를 넘어 학제간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코로나 시대를 분석하고 위기와 변화의 본질을 꿰뚫으며 미증유의 팬데믹에도 지속가능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찰한다. 연구자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함에 있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맞이할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 보고 인문예술치료학의 나아갈 길을 짚어본다.

II.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말한 ‘타인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코로나 시대의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³ ‘타인이 지옥’이 된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강조 되는 사회적 조건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심각한 경우 파괴적 집단행동이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의 극복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20대 청년의 우울증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4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2만 명 중 20대가 16만 8,000명이다. 2010년 대비 2.9배로 증가해 16만 2,000명인 60대를 넘어섰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져 우울증 수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2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취업자 수는 47만 3,000명이 감소했다. 이 중 청년층에서 34만 4,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 위의 책, 102쪽.

4. Shin, L. M., & Liberzon, I., “The neurocircuitry of fear, stress, and anxiety disorders”, *Neuropsychopharmacology* 35(1), 2010, pp.169~191; Yip, P. S., Cheung, Y. T., Chau, P. H., & Law, Y. W., “The impact of epidemic outbreak: the case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nd suicide among older adults in Hong Kong.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1(2), 2010, pp.86~9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울척도검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23.2점이었다. 우울척도검사 점수는 21점 이상이면 중등의 우울 증상으로 분류한다.⁵ 전문가들은 20대 우울증의 원인이 취업난과 고용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이라고 말하며 물리방역도 중요하지만 심리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대학의 역할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대학에서의 할일은 당면한 학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역할 변화를 인지하고 차별화된 플랫폼 전략을 통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위 이외의 미래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동명대학교는 2020년 동명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TU VISION 2025)과 함께 20개의 전략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탈경계 교육실현’이라는 핵심영역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동명대학교가 학제 간 연계 및 융복합 전공운영으로 하는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으로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새로운 교육 혁명 두잉(Do-ing)을 발표한 현 시점에서 융복합 교육의 고도화를 위한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개발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의 목적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세계 패러다임의 이슈들, 즉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특히 바이러스는 인류 전체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한 사람의 감염이 곧 전 인류의 감염일 수 있음을 드러냈다. 감염에 대한 좋은 대응 수단이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사실은 오히려 인간의 완전한 사회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생겨난 성장적 환경은 대학에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강화, 교수에게 의존하던 강의에서

5. 김보경·서정은, 「대학생 ‘코로나 블루’ 급증… 우울하면 주변에 도움 요청하세요.」, 『가천대신문』, 2021.05.10. (<http://www.gach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1>, 2021년 7월 3일 접속)

학생 스스로 책임지는 강의로의 변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 등이다.

본 연구자는 202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서 20대 청년의 우울증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연구 결과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울증과 불안증에 빠져있는 대학생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자아상의 변화와 성장은 일어난다. 코로나19는 타인과 분리되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이후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감의 척도가 더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학제 간의 융복합적 관점으로 코로나19 시대를 분석하고 위기와 변화의 본질을 꿰뚫으며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인문예술학적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인문예술융합교육은 지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여러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우리 현실에서 개인적인 관점을 정립한다는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인문예술학의 역할이며 인문예술학의 치료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인문예술치료는 인문학·예술학의 자산과 그 치료적 효능을 활용한다. 우선 내 생각과 경험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인문예술학 방법론이 개입한다. 철학은 논리이며, 문학은 이야기이고, 예술은 감각이다. 인간은 생각(철학)하고 표현(문학, 예술)하며 기억(역사)한다. 따라서 마음의 병을 다루는 인문예술치료에는 이성적 논리만이 아닌 감성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인문적·예술적 요소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문예술치료의 도구에 철학과 문학 그리고 언어와 역사 이외에 예술이 포함되는 이유다. 결국 인문예술치료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필수조건인 마음의 건강 또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인문예술과 의료의 결합인 ‘인문예술치료학’은 코로나19 사태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데에 최적화된 패러다임인 것이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질문한다.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코로나 이후에는 타인보다 스스로에 몰두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⁶ 인문예술학 공부 역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대면·비대면을 병행하며 ‘따로’ 그리고 ‘함께’ 할 때 뜻밖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연구자는 학제 간 융복합 교육을 강조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교양교과목으로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융복합 교양교과목은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대학생들의 의지를 다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인문예술학’ 개념분석을 적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의료-인문예술학의 결합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자료를 찾아 검토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한 후에 전공 담당교수들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인문예술학’ 개념분석을 적용하여 다양한 의료-인문예술학의 결합에 대한 연구이다. 문헌검색은 RISS, KISS, DBpia, 국회도서관, 구글 학회에서 ‘인문치료’, ‘예술치료’, ‘코로나19’, ‘마음치유’ 등을 주제어로 하여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논문의 포함기준은 주제어 개념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문·영문으로 된 논문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6. 정상혁, 「코로나 이후의 시대… 모든 사람이 예술가 될 것」, 『조선일보』, 2020.08.2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0257.html, 2021년 8월 27일 접속)

2) 교과목 개발을 위한 팀 연구 활동

연구진은 융복합 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 개발에 있어서 교수자와 수강자에게 적합한 교양교과목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9년 동명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융복합 교양교과목의 개발공모사업에서 교과목 <치유와 성장을 위한 인문치료학>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핵심 요소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인문예술치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가치관 정립’, ‘융복합 교육’으로 규정하고, 각 주차별 강의에서 문학, 사학, 철학, 미술, 음악, 영화, 문화 등이 적합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점검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각 분야 교수들과 전문강사들이 지닌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feedback)과 정보는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만들었다.

3) 교과목 강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회의 실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 교과목 강의에 대한 실제적인 학습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별 담당 연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4번의 언택트 전략적 회의를 진행하였다. 강의 방법, 강의 내용, 강의 자료, 팀별 및 개별 과제, 성적평가 등의 보완점을 토론하고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여 강의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은 4번의 전략 회의를 통해 구성된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강의안 검토와 보완을 위한 전략회의

회의	교수자	강의 제목	개선사항 및 보완책
1차	김인숙	2강. 내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마음치료 3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행복한 책읽기, 『코로나19 데카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증·우울증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불안증 심리검사는 정신과 의사 아론 벡(Aaron Beck)이 고안한 벡 불안 척도(BAI, Beck Anxiety Inventory)를, 우울증 심리검사는 우울증자가진단테스트 CES-D의 진단을 이용한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문예술학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1차	문득자	4강.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의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차에 실시했던 불안증과 우울증 심리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학생들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그림자(곰플렉스)를 찾고 강사는 치료와 성장을 위한 글쓰기를 지도한다. •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책읽기가 많아져서 문학 활동을 통한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의 글쓰기를 강조함.
2차	송성안	5강. 아테네 제국의 역병과 중세 흑사병으로 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치료 6강. 코로나19로 나타난 아시아인 혐오와 오리엔탈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관련 이슈를 통해 현재를 관찰해 봄으로써 코로나19 이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 특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믿음 속에서 중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의 담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누이 교오코	7강. 소통과 공감을 위한 찾아가는 역사치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기억의 터)를 방문하여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며 위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한다.
3차	문지혜	8강. 니체에게 배우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철학치료 9강. 어빈 알룸의 실존적 심리학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철학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체는 나락과 회의, 방황과 고통을 겪으며 인간이 이전보다 훨씬 영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철학치료의 과정을 설명한다. • 알룸은 지금의 현실, 사소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긍정의 정신을 강조하는 실존적 심리치료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정호	10강.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보는 철학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철학치료를 설명한다. • 영화와 관련된 로고테라피 치료기법도 설명한다.
4차	윤미영	11강. 영화 <러빙 빈센트>로 보는 고희의 고통과 미술치료 12강.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에 나타난 용의 심리학과 음악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러빙 빈센트>에서 고희가 자기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BTS의 노래를 통해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학적 요소를 찾아 설명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박정아	13강. 차생활 명상을 통한 자기치유와 타인을 배려하는 공존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생활을 통한 명상은 자기치유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접빈다례(接賓茶禮)의 마음도 녹아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Ⅲ. 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교과목 구조 및 운영방안

1. 강좌 구성

1) 강좌 목적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이 요구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심리적 치료와 정신적인 백신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또는 우울의 사이에 있는 20대 대학생들에게 우울증 극복을 위한 역량강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을 통해 우리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코로나 이후에는 타인보다 스스로에 몰두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예술학 공부 역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수업목표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예술치료학의 길을 탐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학제간의 융복합 교과목이 필요한 것이다.

융합교육의 목표는 융복합적 사고능력의 배양에 있다. 융합교육은 학생 주도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융합교육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담당교수의 이론 강의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의 체험 실습을 묶은 옴니버스 강의로, 학생들은 인문예술치료학에 대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적합한 치료방법을 타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각 영역마다 '이론적 강의와 체험적 실습'을 묶은 옴니버스 형식의 수업이 종료된 후 학생들은 새롭게 배운 기초 학문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동명대학교의 교육목표인 '탈경계 교육실현'이라는 학문과 학부(과)간 벽을

7. 홍병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 모색」, 『교양교육연구』 3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62쪽.

낮추는 융복합·학생체험 중심적 교양교육에 따르는 설계로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교과목 구성과 수업운영, 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인문예술치료학의 가능성과 그 성과 등을 점검해보려고 한다.

2) 강의 개요

<표 2> 교과목 개요

교과목 명칭	국문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	학년	학기	학점	강의 시간	실습시간
	영문	Corona Humanities and Arts Therapy	전체	1	2	2	
<p>국문 강의개요: 교과목<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수업목표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예술치료학의 길을 탐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한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학제간의 융복합 교과목이 필요한 것이다. 교과목<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담당교수의 이론 강의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의 체험 실습을 묶은 옴니버스 강의로 학생들은 인문예술치료학에 대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적합한 치료방법을 타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각 영역마다 '이론적 강의와 체험적 실습'을 묶은 옴니버스 형식의 수업이 종료된 후 학생들은 새롭게 배운 기초 학문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p>							
<p>영문강의개요: The class goal of <Corona Humanities and Arts Therapy> is to explore various humanities and arts paths to overcome the corona blue and how to prepare for a sustainable life in the post-corona era. For this reason, rather than specialized knowledge in one field, various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subjects are needed. <Corona Humanities and Arts Therapy> is an omnibus lecture that combines theoretical lectures by the professor in charge and hands-on practice by professional instructors who are active in the field, allowing students to have a broad approach to humanities and arts healing.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allowing students to experience various treatment methods from a humanities and artistic perspective is to allow students to explore suitable treatment methods on their ow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omnibus-type class that combines theoretical lectures and experiential practice in each area, students will be able to think more in-dep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ly learned basic studies.</p>							

2. 강좌 운영

1) 강의 형태

옴니버스 강의(Omnibus Lecture)는 한 교과목 강의에서 이질적인 학문들을 동

시에 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시간·공간상의 물리적 융합을 가능케 한다. 본 교과목 운영은 책임교수를 중심으로 매 주차별 주제에 따라 담당교수와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팀 티칭(team teaching) 형식의 옴니버스 강의다. 담당교수의 이론적 설명+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의 체험실습+개별 과제+팀 프로젝트 수행 등의 실천적·창의적 교육모형을 실행할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교과목의 개발과 연구에 참여한 담당교수와 전문 강사가 전공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형태로 시행될 것이다. 수강자들은 영역의 주제에 따라 전공 담당교수의 2주차에 걸친 강의에서 이론적 지식을 배우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 강사를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실천체험을 수행한다. 팀 티칭 형식의 옴니버스 강의에서는 문학, 사학, 철학, 미술, 음악, 영화, 문화가 한 교과목 강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학생들은 전공영역을 넘어서는 '탈경계 교육실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체험에 대한 결론은 개별 과제로 정리한 후에 지정된 커뮤니티 동명대학교 eCampuse에 올려서 평가를 받게 된다. 담당교수 1인이 15주를 강의하는 일반적인 교양교과목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전공교수와 전문 강사들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인문예술치료'라는 주제 하에 수업을 전담하여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이라는 교양교과목으로 완성될 것이다.

본 강의는 전공별 이론 강의, 체험실습, 개별 과제, 팀별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전공교수들은 2주씩 총 8주간 강의를 진행하고, 전문 강사들은 각 1주씩 총 4주간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책임교수는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담당교수와 전문 강사 소개 및 교과목의 강의 진행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동명대학교 학생심리센터에 직접 의뢰하여 수강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증과 우울증 심리검사를 주도한다. 개별 과제와 팀별 과제는 개별적으로 팀별로 수행하여 제출하고, 담당교수는 제출된 과제를 평가해 준다.

2) 담당 교수진의 구성

융복합 교양교과목인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 강좌는 팀 티칭 형식의 옴니

버스 강의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옴니버스 강의는 문학, 사학, 철학, 미술, 음악, 영화, 문화 등 각 분야의 교수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들이 강의 주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강의는 학제 간 협력과 학습주제 유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기에 학습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실효성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런 교육적 실효성을 목적으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교수들이 학습자의 수업태도, 이해력, 흥미유발 등에 관하여 중간평가 및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강좌 평가

이 강좌의 평가는 2가지 차원에서 수행될 것이다. 하나는 동명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강의평가에 따라 그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담당교수진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강의평가를 세부적으로 시행하여 이 강좌의 문제점들을 파악·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3>의 설문조사표는 이희용의 「융복합 교양교과목 글로벌 시민정신 개발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⁸

<표 3>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 개발 설문조사

1. 본 설문은 융복합 교양교과목 개발연구 수행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과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2. 각 항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 하시고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가. 강의 수강생의 자기 평가 설문

번호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본 강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이희용, 「융복합 교양교과목 글로벌 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216~219쪽.

2	나는 충분한 학습동기를 가지고 본 강의에 참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나는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학습에도 적극적이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a. 결석을 몇 회 하셨습니까? ()회
 b. 결석 사유는 무엇입니까?
결석한 적이 없다 건강상 이유 학습내용이 어려워서 기타()
 c. 본 강의를 수강한 학습 동기는 무엇입니까?
학점 때문에 인문예술치료학의 호기심 때문에
개인적 관심분야라서 기타()

나. 강의 후 수강생 강의 목적 성취도 설문

번호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강의 후 나는 인문예술치료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강의는 개인적으로 학제간의 융복합 강의로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강의 후 나는 코로나19로 나타난 불안감·우울감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강의 후 나는 사물을 바라보는 융복합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강의 후 나는 코로나19 시대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a. 다음의 강의 세부 주제들 중에 인문예술치료학을 통한 코로나 블루 치료와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라는 목적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안녕하신가요?와 행복한 책읽기(2~3주)
전염병의 과거, 현재, 미래와 오리엔탈리즘(5~6주)
니체와 알름의 실존적 심리치료와 철학치료(8~9주)
영화로 보는 미술치료와 BTS의 음악치료(11~12주)
- b. 다음 수업 방식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코로나 블루 치료와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되었는가?
교수님의 강의 강의 주제 내용 교수님의 강의법

- 개인적 과제 □체험적 치유 실습
□기타()

다. 담당 교수의 수업진행 만족도 설문

번호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담당교수들의 강의 내용 전달과 진행 방법에 만족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담당교수들은 성의를 가지고 인문예술치료학을 전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담당교수들은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지식과 치료법을 잘 지도해 주셨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 다음 중 이해가 가장 잘 되었던 강의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 내 마음은 안녕하신가요?와 행복한 책읽기(2~3주)
□전염병의 과거, 현재, 미래와 오리엔탈리즘(5~6주)
□니체와 알룸의 실존적 심리치료와 철학치료(8~9주)
□영화로 보는 미술치료와 BTS의 음악치료(11~12주)

b-1. 다음 중 이해가 가장 잘 안되었던 강의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 내 마음은 안녕하신가요?와 행복한 책읽기(2~3주)
□전염병의 과거, 현재, 미래와 오리엔탈리즘(5~6주)
□니체와 알룸의 실존적 심리치료와 철학치료(8~9주)
□영화로 보는 미술치료와 BTS의 음악치료(11~12주)

b-2. 그런 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c. 다음 중 가장 이해가 잘 되었던 특강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 치유의 글쓰기 지도(4주)
□소통과 공감을 위한 찾아가는 역사치료(7주)
□영화<인생은 아름다워>로 보는 철학치료(10주)
□차생활명상을 통한 자기치유와 타인 배려 정신(13주)

라. 융복합 교양과목 운영 및 특강 만족도 설문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강의 내용의 융복합적인 구성에 만족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본 강의는 융복합 강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문학, 사학, 철학, 예술, 문화, 사회학적 강의 구성에 만족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나는 본 강의를 후배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본 강의의 이론적 내용과 응용적 활동에 만족한다.(내용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본 강의의 융복합적 교과내용이 수강생에게 적합했다.(적합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내가 기대했던 융복합적 교과내용이 있었다.(요구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본 교양 강의의 융복합적 구성을 권장하고 싶다.(추천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본 강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필요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본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적어주세요.

바. 설문자 내용(비공개)

나의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내 소속 전공은? ()

*수고하셨습니다.

IV. 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의 주차별 세부 강의 주제와 내용

1. 세부 강의 주제와 담당교수

<표 4> 세부 강의 주제와 담당교수

주차	강의방법	강의주제	담당교수
1주차	오리엔테이션	교과목 강의 및 담당교수진 소개	책임교수: 윤미영 전공교수: 4인 전문강사: 4인
2주차	문학치료 강의	내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마음치료	김인숙 교수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전문화복지
3주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행복한 책읽기, 『코로나19 데카메론』	
4주차	특강 체험 (치료 1)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의 글쓰기	문득자 강사 마음샘심리상담원 구소/ 문학치료
5주차	역사치료 강의	아테네 제국의 역병과 중세 흑사병으로 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치료	송성안 교수 경남대학교 자유전 공학부/ 한국사
6주차		코로나19에 나타난 아시아인 혐오와 오리엔탈리즘	
7주차	특강 체험 (치료 2)	소통과 공감을 위한 찾아가는 역사치료,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기억의 터)	사누이교오코 강사 동명대학교 학부교 양대학/ 일본문화

8주차		니체에게 배우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철학치료	
9주차	철학치료 강의	알몸의 실존적 심리학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철학치료	문지혜 교수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10주차	특강 체험 (치료 3)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보는 철학치료	서정호 강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보건최고 경영자과정
11주차		영화 <러빙 빈센트>로 보는 고흐의 고통과 미술치료	
12주차	예술치료 강의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에 나타난 용의 심리학과 음악치료	윤미영 교수 동명대학교 선명상치유학과/ 인문예술치료
13주차	특강 체험 (치료 4)	차생활명상을 통한 자기치유와 타인을 배려하는 공존능력 함양	박정아 강사 푸른 응접실의 홍차 대표/ 차와 창업 컨설팅
14주차	자기 성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자기성장 (팀 프로젝트 발표, 평가, 채점 및 개별 글쓰기 과제 발표)	담당교수 모두 참석
15주차	평가	중간·기말고사 대체의 개별 과제 제출	담당교수 평가

2. 세부 강의 내용

◎ 1주차: 교과목 강의 및 담당교수진 소개

책임교수는 인문예술치료학에 대한 개념 정의와 문학치료, 역사치료, 철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영화치료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 분야의 전공교수와

전문 강사를 소개하며, 팀별 과제와 개인별 과제에 대한 내용도 설명한다.

◎ 2주차: 내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마음치료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특히 20대 청년들의 우울증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 강좌에서는 수강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나타난 불안증·우울증 자가진단을 추진한다. 불안증 심리검사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아론 벡(Aaron Beck)이 고안한 벡 불안 척도(BAI, Beck Anxiety Inventory)를 이용하고, 우울증 심리검사는 우울증자가진단테스트 CES-D의 진단표를 이용한다.

◎ 3주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행복한 책읽기, 『코로나19 데카메론』⁹

적극적인 책 읽기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바깥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신의 반응, 즉 자신의 내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르는 과정은 지금의 나를 확인하고 미래의 나를 형성하는 자율성을 연습해보는 학생 시절의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다. 담당교수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인문예술학 관련 도서를 선택·소개한다. 그리고 동명대학교에서 열리는 '중앙도서관 전자책 다독상' 대회에도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 4주차(문학치료 특강):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의 글쓰기

2주차에 실시했던 불안증과 우울증 자가진단의 결과를 확인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를 둘러싼 부정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문예술치료학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실시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의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 탐색에 집중하고, 나아가 자신이 겪었던 상처, 좌

9.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코로나19 데카메론』, 모시는 사람들, 2020.

절, 고통의 경험 그리고 우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된다.¹⁰ 글쓰기는 정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¹¹ 이런 점에서 전문 강사는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는 글쓰기 활동을 강의한다.

● 5주차: 아테네 제국의 역병과 중세 흑사병으로 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치료

과거 아테네 제국의 역병을 실례로 제시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이 방역을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중세 흑사병이 초래했던 상황에서도 재난극복을 위한 사람들이 보인 양상과 관련해 역병이 진정된 이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설명한다. 전염병과 사회, 전염병과 인간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탐색·연구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습득하고 폭넓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역사적 감각과 안목에서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비교해 보고, 이런 비교를 통해 현재적 이슈들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인문학적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거를 통해 현재를 관찰해봄으로써 코로나19 이후를 한층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 6주차: 코로나19에 나타난 아시아인 혐오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의 중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동양인 혐오 범죄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매우 크다.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로 체포된 비율이 2019년에 비해 7배 높아졌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32% 증가했다. 흑사병의 시대에 유럽인들은 흑사병을 ‘오리엔트 역병’이라 불렀고 19세기에도 콜레라를 ‘아시아 병’으로 불렀다. 오리엔트와 아시아가 역병을 낳을 정도로 더럽고 무지하고 열등한 지역이라는 편견을 전제하고 있다. 어떤 이유이든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서양사회와 동양사회를 나눠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또

10. 오세은, 「대학 신입생 '치유적 글쓰기'의 인문학적 성찰과 자아분석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43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227쪽.

11. 세퍼드 코미나스, 『나를 위로하는 글쓰기』, 임옥희 (역), 홍익출판사, 2017, 81쪽.

한 용인돼서는 안 된다. 세계가 동양인 혐오범죄에 관심을 가지며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의 다양한 현안과 과제들을 통찰하는 능력,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일 줄 아는 글로벌 세계시민 의식함양 교육이 필요하다.¹²

◎ 7주차(역사치료 특강): 소통과 공감을 위한 찾아가는 역사치료

역사에 의한 외상의 치료에 대해 미국의 역사이론가 도미니크 라 카프라(Dominick La Capra)는 정신분석학적 전이 개념으로 ‘성찰적 극복하기’를 들고 있다. ‘성찰적 극복하기’는 역사적 외상자가 과거의 사건과 정면으로 대면해 트라우마의 기억을 객관화함으로써 자신을 그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역사가는 트라우마의 희생자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기억의 건강한 복귀를 주도하는 역사치료를 해야 한다.¹³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장소』에서도 기억과 역사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상보적인 성격을 부각시킨다. 기억과 역사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사학,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기억의 일부로 성찰하는 비판적 역사학인 것이다. 이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의 기억의 터전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 8주차: 니체에게 배우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철학치료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과거의 삶이나 고통,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삼으라고 말한다. 니체는 방황하고 나락을 체험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인간 본연의 내면세계를 깊고 철저히 이해하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⁴ 또 니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병이 있는데, 이는 일상의 생활태도나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고 말한다. 따라서 니체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작고 사소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서서히 영혼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

12. 서정일, 「대학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문화와 융합』 43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147쪽.

13. 도미니카 라 카프라, 『치유의 역사학으로』, 육영수(역), 푸른역사, 2008, 393쪽.

14. 니체, 『즐거운 학문』, 안성찬·홍사현(역), 책세상, 2005, 29~30쪽.

다. 이러한 탄생의 기술, 변형의 기술이 바로 니체에게는 치료의 과정이다.

● 9주차: 어빈 알롬의 실존적 심리학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철학치료

어빈 알롬(Irvin D. Yalom)의 실존적 심리치료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의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상의 사소한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한다. 어빈 알롬의 실존적 심리치료는 지금 여기 현실의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긍정의 정신을 강조하고, 삶의 변화로 겪은 체험을 통해 실존적 충일감, 자기 긍정의 존재의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각적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 10주차(철학치료 특강):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보는 철학치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20세기 가장 불행한 사건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소재를 밝고 유머러스하게 그린 특이함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실의 비애를 오히려 코미디로 다룬 것이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지옥,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를 하나의 놀이터로 만든 아버지 귀도는 결국 목숨까지 내놓지만 마지막까지 웃어 보인다. 이렇게 오염하지 않으면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영화<인생은 아름다워>는 아무리 암울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시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인생의 주인인 자신에게 달려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마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11주차: 영화 <러빙 빈센트>로 보는 고희의 고통과 미술치료

미술치료의 목적은 미술을 도구로 미술 내부에 숨겨진 근원과 자원을 찾아 미술을 매체로 하여 인간의 이해와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다. 미술치료 방법이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 고유의 감수성 차이를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

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술창작 활동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치료이며 승화와 통합과정의 일부이다. 영화 <러빙 빈센트>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주기적인 신경발작증에 시달리게 된다. 생레미 요양소에서의 날들은 고흐의 삶에서 가장 비참했지만 동시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병을 넘어서기 위해 꾸준히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작가들은 침묵 속에 묻힌 것들을 말할 수 없었기에 심상으로 떠올리고 그것을 표현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술치료의 본질이자 미술의 치유적인 방법과 힘이다.¹⁵

◎ 12주차: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에 나타난 융의 심리학과 음악치료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음악치료는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향상시켜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더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음악활동의 전문분야이다.”라고 정의한다. 음악치료는 음악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기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BTS는 불안한 미래로 고민하는 20대와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 즉 성장·성찰·치유·공감·연대를 강조하며 문학, 철학, 심리학, 영화 등의 다양한 인문예술학적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 가사의 소재들은 대부분 철학과 심리학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데미안』, 머리 스타인(Murray Stein)의 『융의 영혼의 지도』 등에서 가져왔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무의식 속에 어두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그림자라고 부른다. 데미안의 어둠의 세계와 밝은 세계는 융의 무의식의 그림자가 데미안의 어두운 세계이며, 밝은 세계는 무의식 속의 참된 나 자기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융의 무의식 심층에는 ‘자기원형’이 있다는 점이다. 자기원형은 무의식이 자율성을 가진 창조적 조정능력을 지녔

15. 홍선미, 「비움과 채움의 이미지: 마음치유의 장: 예술활동의 미술치료 효과를 위하여」, 『라강과 현대정신분석』 18권 1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6, 106~133쪽.

으며 파편화된 마음을 합쳐주므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¹⁶ 결국 자기 치유는 자기실현의 과정이며 건강한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주목할 용어로 볼 수 있다.¹⁷

BTS의 <페르소나(Persona)>와 <전하지 못한 진심(The Truth Untold)>은 용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져왔다. 특히 <다이내마이트(Dynamite)>는 경쾌한 디스코 팝 장르의 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방탄소년단의 소망이 담긴 ‘힐링송’이다.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감성 백신이라고 불릴 만하다. 이렇게 인문예술학으로 세계 팬덤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은 월드와이드 슈퍼스타가 되었다.

● 13주차(茶문화 치료 특강): 茶생활명상을 통한 자기치유와 타인을 배려하는 공존능력 함양

차명상은 차생활이라는 일상적 행위에 명상을 응용하여 마음 수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의 정서적 유익함에 명상을 함께하여 정신수양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일상의 행위를 명상으로 연습함으로써 일상의 모든 활동을 명상으로 생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명상의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 명상이 생활 속에 익숙해지면 그 과정 속에 이미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행복과 기쁨을 알아차리게 된다.¹⁸ 차 한 잔이 자신 앞에 놓이기까지 자연의 조화와 더불어 수많은 존재의 노고를 거쳤다는 사실에 눈뜨게 된다. 이러한 자애의 마음으로 차를 우리면서 심신은 더욱 고양되어가고 차인의 성품 또한 고취된다. 차를 정성으로 우려 베풀고 싶은 마음, 곧 접빈다례(接賓茶禮)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 단계가 차명상의 완성 단계이다.

● 14주차: 팀 프로젝트 발표, 평가, 발전방향 제시 및 개별 과제 글쓰기 발표

먼저 팀 프로젝트는 팀장 1인이 발표하며, 담당교수는 평가 및 발전방향을

16. 이부영,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한길사, 1999, 31~47쪽.

17.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96쪽.

18. 윤미영, 『예술명상치료』, (주)에세이퍼블리싱, 2021, 138~142쪽.

제시한다. 다음으로 개별 과제 글쓰기 발표는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속 불안 다루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이해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프로그램 내용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치료한 것으로 유명한 안나 오(Anna O)는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냄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나 심신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결국 치유의 힘은 그의 말을 통해 나온 것이다.¹⁹ 학생들은 글쓰기와 발표를 통해 자기 치유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함에 있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양교육 차원에서 강좌로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학제 간의 융복합적 이론과 체험적 실습을 통해 의식적 전환과 실천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양능력 함양을 이루고자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료와 인문예술학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교양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코로나19로 인간이 일구어 온 문명의 모순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인류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곤경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더 이상 일국 차원에서는 퇴치가 불가능한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하나의 전공 분야의 한계성을 넘어 학제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인문예술학의 결합으로 이 사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최적화된 전략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학문과 학부(과)간 벽을 낮추는 융복합·학생체험을 강조하는 ‘탈경계 교육실현’에 따르는 설계로서

19. 율미영, 『인문학으로 마음의 병 치료하기』, 한국학술정보(주), 2018, 138쪽.

개발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발된 강좌에서는 소영역의 학습이 종료된 후 '이론적 강의와 체험적 실습'을 묶은 형식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새롭게 배운 기초학문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융복합 교양교과목 <코로나 인문예술치료학>은 책임교수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공교수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의 합의된 관점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주차별로 주제를 가르치는 팀 티칭 형식의 옴니버스 강의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수강신청 학생의 심리검사, 다양한 인문예술치료학의 체험실습 등 교양교과목의 교육모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코로나19 데카메론』, 모시는 사람들, 2020.
- 니체, 『즐거운 학문』, 안성찬·홍사현 (역), 책세상, 2005.
- 도미니카 라 카프라, 『치유의 역사학으로』, 육영수 (역), 푸른역사, 2008.
- 세퍼드 코미나스, 『나를 위로하는 글쓰기』, 임옥희 (역), 홍익출판사, 2017.
- 안치용, 『코로나 인문학』, 김영사, 2021.
- 윤미영, 『예술명상치료』, (주)에세이퍼블리싱, 2021.
- _____, 『인문학으로 마음의 병 치료하기』, 한국학술정보(주), 2018.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 _____,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한길사, 1999.
- 서정일, 「대학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문화와 융합』 43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136~151쪽.
- 오세은, 「대학 신입생 ‘치유적 글쓰기’의 인문학적 성찰과 자아분석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43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214~230쪽.
- 이희용, 「융복합 교양교과목 글로벌 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197~232쪽.
- 홍병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 모색」, 『교양교육연구』 3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51~78쪽.
- 홍선미, 「비움과 채움의 이미지: 마음치유의 장: 예술활동의 미술치료 효과를 위하여」,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18권 1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6, 106~133쪽.
- Shin, L. M., & Liberzon, I., “The neurocircuitry of fear, stress, and anxiety disorders”, *Neuropsychopharmacology* 35(1), 2010, pp.169~191.
- Yip, P. S., Cheung, Y. T., Chau, P. H., & Law, Y. W., “The impact of epidemic outbreak: the case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nd suicide among older adults in Hong Kong.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1(2), 2010, pp.86~92.
- 김보경·서정은, 「대학생 ‘코로나 블루’ 급증… 우울하면 주변에 도움 요청하세요」, 『가천대신문』, 2021.05.10. (<http://www.gachonnews.com/news/articleView>.)

- html?idxno=5581, 2021년 7월 3일 접속)
- 손박사 지압원, 「치유와 치료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8. 6. 2.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octor_acupressure/221290135328, 2021년 7월 7일 접속)
- 정상혁, 「코로나 이후의 시대… 모든 사람이 예술가 될 것」, 『조선일보』, 2020.08.2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0257.html, 2021년 8월 27일 접속)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nvergent Liberal Arts Curriculum: <Corona Humanities and Arts Therapy>

Yoon, Miyoung (Tongmyong University, Professor)

As COVID-19 continues for a long time, a study has found that depression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has reached a dangerous level. Alth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nnounced a plan to support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in connection with the curriculum, the development of contents that can overcome COVID-19 and develop literacy skills for establishing new values is insignificant in the reality of universities. In this regard, it is very appropriate to develop and study subjects to provide standards for overcoming the corona pandemic situation and the direc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o move forward in the post-corona era.

<Corona Humanities and Arts Therapy> is a combination of medical science and humanities that can be approached in an interdisciplinary way and has strategic conditions optimized for understanding this situation and finding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it to classes as a design following the ‘realization of borderless education’ that emphasizes convergence and student experience.

Keywords: Convergence Curriculum, Crona Blue, Humanities and Arts Therapy, Realization of Borderless Education, Omnibus Lecture

논문 투고일 : 2020년 10월 07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10월 04일 계재 확정일 : 2021년 10월 10일
--